

“거래지표 완벽해야 상품선물시장 발전”

상품선물시장 발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돈육선물거래가 곧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10월 25일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열린 '상품선물시장 발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는 돈육선물을 포함한 상품선물시장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덱스의 완벽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게 발표하는 데이터를 사용한 공식값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폴 피터슨 이사는 "미국의 상품선물 거래시장은 삼겹

돈육선물을 포함한 상품선물시장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덱스의 완벽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폴 피터슨 미국 시카고 상업거래소(CME) 이사는 지난 10월 25일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열린 '상품선물시장 발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 주제 발표자로 참석해 "CME가 돈육선물을 상장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덱스의 완벽성과 신뢰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폴 피터슨은 "상품선물 거래를 위한 인덱스의 계산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간단해야 하며 반드시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며 "CME는 일반인들에

살 → 생우 → 돼지 → 돈육선물로 발전해왔으며, 성공적인 선물거래를 위해서 거래지표는 반드시 현물시장의 행태가 적용돼야 하며 최근의 정보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터슨은 모든 상품선물에 현금결제에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CME 돈육선물의 경우에는 현금결제 적용 이후 거래가 늘어나는 효과를 얻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현금결제는 현물의 이동이 없다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트레이더에게 매력적인 제도"라며 "CME가 현금결제를 적용한 이후 돈육선물 거래량이 빠르게 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700만 계약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양동**